

전라북도교육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8 전라북도 인권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제 출 문

전라북도 교육감 귀하

이 보고서를 2018년도 연구용역사업 「2018 전라북도 인권 모니터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군산성폭력상담소

소 장 김 혜 영

이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영석(군산성폭력상담소 직원연구원)

목 차

제 1 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제 2 장 모니터링 분석결과	 8
제1절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현황	8
1. 모니터링 학교 현황	8
2. 교육 진행현황	9
3. 인권교육 계획 및 담당교사 항목	16
4. 인권교육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점	17
제2절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19
1. 응답자 특성	19
2. 인권인지도 및 관심	20
3. 인권교육 인지	23
4. 인권교육 경험	26
5. 차별경험	31
6. 교육만족도	33

제 3 장 요약 및 제언	35
제1절 조사결과 요약	35
1.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현황	35
2.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36
제2절 제언	38
참고문헌	42
부록(체크리스트 및 설문지)	43

〈표 목차〉

〈표 1〉 학생인권 모니터링 도구 질문항목표	4
〈표 2〉 모니터링 학교현황	8
〈표 3〉 교육유형	10
〈표 4〉 교육 진행방법	11
〈표 5〉 교육시간	12
〈표 6〉 교육형태	12
〈표 7〉 교육교수방법	13
〈표 8〉 강의교안 유형	14
〈표 9〉 교육내용의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15
〈표 10〉 인권교육 계획 및 담당교사 항목	16
〈표 11〉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17
〈표 12〉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	18
〈표 13〉 응답자 특성	19
〈표 14〉 인권 인지도	20
〈표 15〉 인권 인지경로	21
〈표 16〉 인권 및 인권교육 관심	22
〈표 17〉 인권교육 실시 여부	23
〈표 18〉 학생인권교육 형식	24

<표 19> 학생인권교육의 도움정도	25
<표 20> 인권교육 주제 인지 여부	26
<표 21> 기본인권교육 교육경험	27
<표 22> 기본인권교육 횟수	28
<표 23> 성(인권)교육 교육경험	28
<표 24> 성(인권)교육 횟수	29
<표 25> 노동(인권)교육 교육경험	30
<표 26> 노동(인권)교육 횟수	31
<표 27> 차별경험	32
<표 28> 교육만족도	34

〈그림 목차〉

그림 1) 교육유형	10
그림 2) 교육 진행방법	11
그림 3) 교육형태	13
그림 4) 교육교수방법	14
그림 5) 강의교안 유형	15
그림 6) 교육내용의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16
그림 7)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17
그림 8)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	18
그림 9) 인권 인지도	20
그림 10) 인권 인지경로	21
그림 11) 인권교육 실시 여부	23
그림 12) 학생인권교육 형식	24
그림 13) 학생인권교육의 도움정도	25
그림 14) 인권교육 주제 인지 여부	26
그림 15) 기본인권교육 교육경험	27
그림 16) 성(인권)교육 교육경험	29
그림 17) 노동(인권)교육 교육경험	30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7 월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중이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 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제7 조) 및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제30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아래 참조).

관련근거(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 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 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은 인권교육이 의무나 지침에 따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인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을 향유하며, 인권보장의 문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고, 제30 조 제1항은 학생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학생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이 일상화되려면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 학기당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전라북도, 2014).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전라북도 소재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교육의 의

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라북도 소재 767개의 모든 학교가 기본인권, 성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등의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실적 집계 외에는 아직까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없다. 다만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상황만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의 실시 여부나 주제 등의 내용만을 단순히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이 본래의 목적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논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실제 어떤 내용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의 효과는 어떠하며,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의 운영현황 자료 수집과 그 성과를 파악하고,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인권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내용, 진행방법 등의 기본적 자료 수집
- 둘째,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효과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셋째,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학생인권교육 관련 지표 검토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 제작을 위해 학생인권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서울시학생인권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2015),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청, 2017) 등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도구 작성에 반영하였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실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2018년 현재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인권교육, 성(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의 학생인권교육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실제 교육이 진행된 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황 및 교육내용, 교육 진행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권교육 진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인권교육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및 설문도구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첫 번째 도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 이전, 사전 모니터링과 첫 번째 대상 학교의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인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조사도구는 <표 1>에 제시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나 대규모 표본조사가 아닌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의 모니터링 조사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문항과 2018년 인권교육 주제 및 교육 관련 문항들 위주로 작성되었다.

〈표 1〉 학생인권 모니터링 도구 질문항목표

구분	조사항목	세부사항	비고
checklist	학교현황	①학교유형 ②설립유형 ③학생 수	
	교육진행현황	①교육 유형 ②교육 진행방법 ③교육시간 ④교육형태 ⑤교육교수방법 ⑥강의교안유형 ⑦인권과의관련성	
	인권교육 계획 및 담당교사 항목	①정기적계획수립여부 ②인권교육담당교사유무 ③담당교사의타업무병행유무 ④ '2018 인권교육주제 인지여부	
	개선사항	①교육준비과정의어려움 ②인권교육의개선점	
설문내용 (학생)	인구사회학적특성	①성별 ②학년	
	인권인지도 및 관심도	①인권 인지도 ②인권 인지경로 ③인권 및 인권교육 관심도	
	인권교육인지	①인권교육 실시여부 ②인권교육 형식 ③학생인권 도움정도 ④주제인지여부	
	인권교육 경험	①유형별 교육경험 ②유형별 교육받은 횟수	
	차별경험	①~⑩	최근1년동안의 차별 경험(10문항)
	교육만족도	①교육환경 ②교육내용 ③교육주제 ④교육시간 ⑤강사(교사)	해당 사항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3) 학생인권교육의 개선방안 제시

체크리스트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학생인권 및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모니터링 도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개선방안과 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해당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①모니터링학교 표본설계

본 연구의 모집단이 되는 전라북도의 전체 학교는 2017년 말 현재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총 767개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이 중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30개 학교의 선정을 위해 집락표집과 층화표집방법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학교 수의 분포를 고려해 ‘대·중·소’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각 1개의 지역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학교별 교육일정이 상이해 모니터링 일정의 조정이 어려워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협조를 얻어 2개의 시지역과 2개의 군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 학교의 교육일정을 회신 받고 일정을 조정하였다.

한편, 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소규모로 분류된 지역들의 경우 학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가 교육일정을 회신하지 않아 범위를 확대해 추가적으로 4개의 소규모 지역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최종적인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총8개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8개의 지역 중 인구규모가 큰 2곳에서는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층화하고 각 층에서 10개 학교씩 20개 학교를,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육일정과 조사일정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1개 중학교의 경우 조사 종료시점에 진행되기로 했던 교육일정을 종료시점 이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1개 중학교를 선정하였으나 이마저도 모니터링 조사를 거부해, 최종적으로 초·고등학교 각각 10개 학교, 중학교 9개 학교, 총29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②설문 표본크기

모니터링 대상 학교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설문조사의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적절한 설문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를 결정하였다. 신뢰수준은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사용되는 95%의 신뢰수준으로, 표본오차는 조사비용, 기간, 조사방법 등을 고려해 5%로 결정하였다.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다음의 공식을 산정해 산출하였다.

$$n = \frac{Z^2 p(1-p)}{e^2}$$

(n: 표본 크기, e: 표본오차, Z: 95신뢰수준에서의 표준정규분포 값, p: 모비율)

산출결과 적정 표본크기는 385명이었으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비교를 위해 층화된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300명, 총 900명을 최종 표본크기로 결정하였다.

③설문 조사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한 각 학교별 30명씩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교 규모별, 교육의 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초 조사학년은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초등학생은 6학년 한 학급, 중·고등학생은 3학년들의 경우에는 입시준비를 고려해 2학년 한 학급으로 한정하였다.

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는 모두 교육을 수강한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되었거나, 방문 당시 교육 대상 학년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1, 3학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64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많은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8개의 설문을 제외한 629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④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분포의 차이나 집단 간의 평균을 분석하기 위해서 χ^2 , ANOVA 등의 분석방법도 사용되었다.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자체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인권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권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전라북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현장의 인식수준,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인권교육계획 및 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향인 학생인권의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제 2 장 모니터링 분석결과

제 1 절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현황

1. 모니터링 학교 현황

실제 모니터링이 진행된 학교의 기본적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9개의 학교 중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개교, 중학교는 9개교가 조사되었다. 학교유형에서는 ‘남녀 공학’이 2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86.2%), ‘남학교’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였다. 설립유형에서는 ‘국·공립’이 24개(82.8%), ‘사립’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포함되었다.

총 재학생 수는 평균 314.6명으로 최소 19명에서 최대 940명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초등학교는 평균 274명, 중학교는 평균 91명, 고등학교는 평균 731명으로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교육참여 학생 수는 평균 78.2명으로 최소 12명에서 최대 701명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평균 26명, 중학교는 평균 91명, 고등학교는 평균 118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표 2> 모니터링 학교 현황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전체		29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0	34.5
	중학교	9	31.0
	고등학교	10	34.5
학교유형	남·여 공학	25	86.2
	남학교 ¹⁾	4	13.8
	여학교	0	0.0
설립유형	국·공립	24	82.8
	사립 ²⁾	5	17.2

〈표 2〉 모니터링 학교현황(표 계속)

구분	항목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재학생수	전체	19	940	314.62	256.71
	초등학교	60	480	274.00	169.46
	중학교	19	430	91.00	133.10
	고등학교	66	940	731.00	322.29
교육참여학생수	전체	12	701	78.17	144.36
	초등학교	12	65	26.00	14.73
	중학교	19	430	91.00	133.10
	고등학교	18	701	118.80	209.40

주: 1) 남학교는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3개 학교임
 2)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4개 학교임

2. 교육 진행현황

2-1) 교육유형

각 급 학교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본인권교육’이 22개 학교에서 진행되어 가장 많았고, ‘성(인권)교육’은 6개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1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학교 급별로 ‘기본인권교육’의 비중이 모두 높았으며, ‘노동(인권)교육’의 경우 초중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권교육 담당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로 1, 3학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사들이 투입된 반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는 사회에 진출하는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소 의외였으나 조사 종료시점 이후에 별도의 학교 자체예산을 투입해 ‘노동(인권)교육’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던 중학교 1곳도 있었다.

한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 시 ‘기본인권교육’ 안에 장애나 장애

인과 관련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인권교육’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3〉 교육유형

(단위: 개소, %)

구분 \ 항목	기본인권교육	성(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전체	22(75.9)	6(20.7)	1(3.4)
초등학교	9(90.0)	1(10.0)	0(0.0)
중학교	7(77.8)	2(22.2)	0(0.0)
고등학교	6(60.0)	3(30.0)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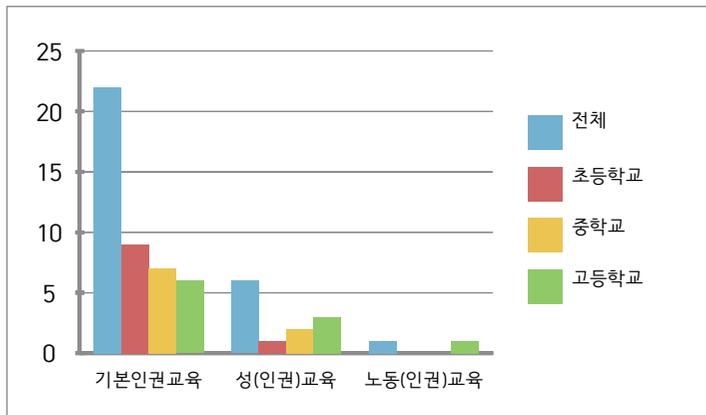


그림 1) 교육유형

2-2) 교육 진행방법

인권교육의 진행방법은 ‘반별교육’ (65.5%), ‘전체 집합교육’ (31.0%), ‘학년별 집합교육’ (3.4%) 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반별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집합교육’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집합교육’

의 비율이 학년별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코자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방송교육을 통해 교실 내에 설치된 TV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4〉 교육 진행방법

(단위: 개소, %)

구분 \ 항목	전체 집합교육	학년별 집합교육	반별교육
전체	9(31.0)	1(3.4)	19(65.5)
초등학교	2(20.0)	0(0.0)	8(80.0)
중학교	5(55.6)	0(0.0)	4(44.4)
고등학교	2(20.0)	1(10.0)	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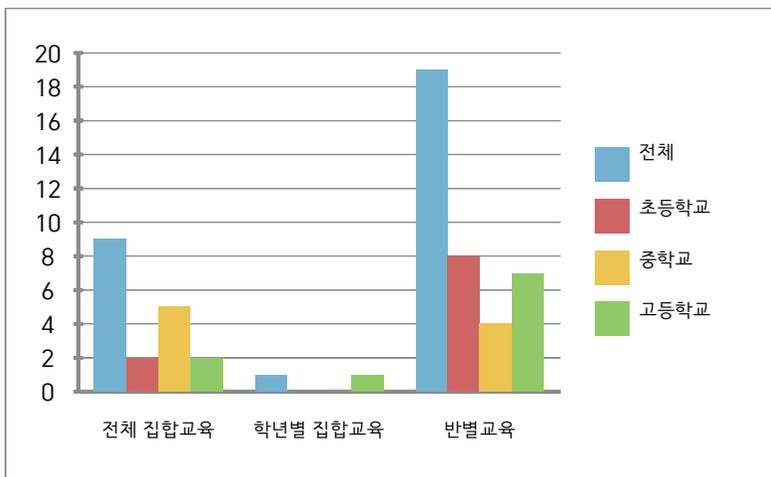


그림 2) 교육 진행방법

2-3) 교육시간

인권교육이 진행된 시간은 평균 1.1시간으로 파악되었다. ‘중학교’가 평균 1.2시간, ‘고등학교’ 평균 1.1시간, ‘초등학교’ 평균 1.0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교육시간이 가장 짧았으나 이는 학교 급별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인권교육의 형태와도 밀접

한 관련이 있어 평균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2시간 교육일 정이 계획되어 있던 많은 교육, 특히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들은 실제 2시간이 아닌 1시간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 5〉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구분	항목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간	전체	1	2	1.10	.31
	초등학교	1	1	1.00	.00
	중학교	1	2	1.22	.44
	고등학교	1	2	1.10	.32

2-4) 교육형태

인권교육의 형태는 ‘외부강사 강의’가 4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업시간’을 활용한 교육 34.5%,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교육 17.2%, ‘방송교육’ 6.9% 순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이 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학교는 ‘외부강사 강의’ 66.7%, 고등학교는 ‘외부강사 강의’,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이 각각 30.0%로 나타났다. ‘방송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개교씩 진행되었다.

〈표 6〉 교육형태

(단위: 개소, %)

구분	항목	외부강사강의	수업시간	창의적체험활동	방송교육
	전체		12(41.4)	10(34.5)	5(17.2)
초등학교		3(30.0)	5(50.0)	2(20.0)	0(0.0)
중학교		6(66.7)	2(22.2)	0(0.0)	1(11.0)
고등학교		3(30.0)	3(30.0)	3(30.0)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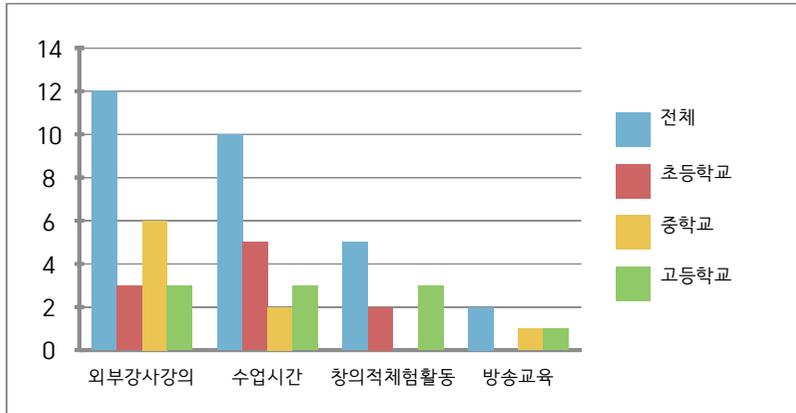


그림 3) 교육형태

2-5) 교육교수방법

교육 교수방법은 ‘혼합형’이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합형’은 주로 ‘강의식’과 ‘시청각교육’이 혼용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강의교안이나 교육에 필요한 동영상자료 등을 교육에 활용한 방법으로 모든 학교 급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강의식’은 초등학교에서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교과내용 안에 인권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주된 교재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온전한 토론식 수업은 아니나 담임교사 주도하에 토론 형태의 교육이 진행된 학교도 1개교가 있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청각교육’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표 7〉 교육교수방법

(단위: 개소, %)

구분 \ 항목	강의식	토론식	시청각교육	혼합형
전체	4(13.8)	1(3.4)	4(13.8)	20(69.0)
초등학교	3(30.0)	1(10.0)	0(0.0)	6(60.0)
중학교	1(11.1)	0(0.0)	1(11.1)	7(77.8)
고등학교	0(0.0)	0(0.0)	3(30.0)	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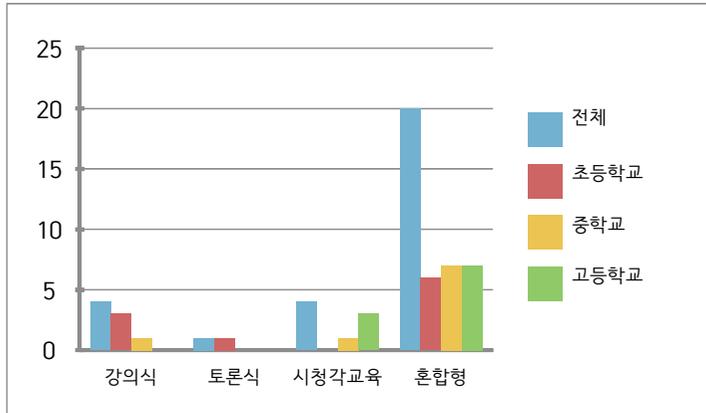


그림 4) 교육교수방법

2-6) 강의교안 유형

강의교안의 유형에서는 ‘강사(교사)제작’이 4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37.9%, ‘인권관련기관’ 10.3%,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이 각각 3.4% 순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타’의 비율이 70%에 달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강사(교사)제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학교에서 ‘기타’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회, 도덕, 국어 등 주로 담임 주도하에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별도의 교안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다.

〈표 8〉 강의교안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강사(교사)제작	인권관련기관	기타
전체	1(3.4)	1(3.4)	13(44.8)	3(10.3)	11(37.9)
초등학교	0(0.0)	0(0.0)	1(10.0)	2(20.0)	7(70.0)
중학교	1(11.1)	0(0.0)	7(77.8)	0(0.0)	1(11.1)
고등학교	1(10.0)	0(0.0)	5(50.0)	1(10.0)	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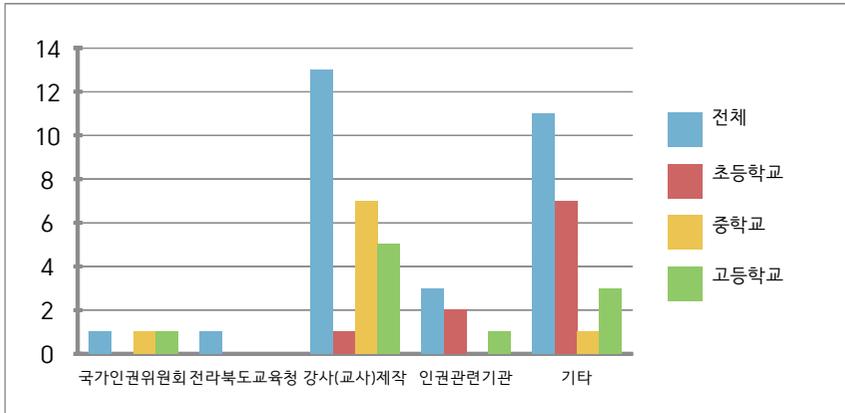


그림 5) 강의교안 유형

2-7) 교육내용의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진행된 교육의 내용이 인권교육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관련있음’ 72.4%, ‘관련없음’ 은 27.6%로 나타났다. ‘관련없음’ 으로 분류된 교육은 중학교가 11.1%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20.0%, 고등학교 50.0% 순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관련없음’ 으로 분류된 교육들은 대부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보건교사 주관 하에 성교육이 진행되거나 인권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교육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교육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표 9> 교육내용의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단위: 개소, %)

구분 \ 항목	관련있음	관련없음
전체	21(72.4%)	8(27.6)
초등학교	8(80.0)	2(20.0)
중학교	8(88.9)	1(11.1)
고등학교	5(50.0)	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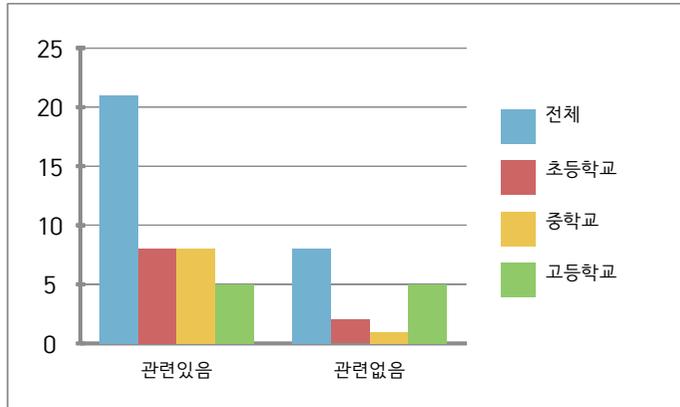


그림 6) 교육내용의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3. 인권교육 계획 및 담당교사 항목

인권교육 계획과 담당교사와 관련된 항목들도 모니터링에 포함되었다. ‘정기적인 인권교육 계획수립 여부’는 모든 학교가 학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모든 학교에 있었으며 초등학교는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중·고등학교는 학생부나 인성인권부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타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고, 2018년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주제 ‘차별’을 알고 있는 인권교육 담당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표 10〉 인권교육 계획 및 담당교사

(단위: 개소, %)

구분	정기적 인권교육 계획수립여부		학생인권교육 담당교사 유무		담당교사의 타 업무와의 병행		‘2018인권교육주제 인지여부	
	그렇다	아니다	있음	없음	병행함	병행하지않음	알고 있음	모름
전체	29(100.0)	0(0.0)	29(100.0)	0(0.0)	29(100.0)	0(0.0)	0(0.0)	29(100.0)
초등학교	10(100.0)	0(0.0)	10(100.0)	0(0.0)	10(100.0)	0(0.0)	0(0.0)	10(100.0)
중학교	9(100.0)	0(0.0)	9(100.0)	0(0.0)	9(100.0)	0(0.0)	0(0.0)	9(100.0)
고등학교	10(100.0)	0(0.0)	10(100.0)	0(0.0)	10(100.0)	0(0.0)	0(0.0)	10(100.0)

4. 인권교육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점

4-1)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31.0%)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교과수업의 부담’ 24.1%, ‘강사 섭외의 어려움’ 17.2%, ‘예산의 부족’,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기타’ 항목이 각각 6.9% 순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시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수업의 부담’ 도 어려운 점으로 선택하였다.

〈표 11〉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단위: 개소, %)

구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수업의 부담	7(24.1)	2(20.0)	2(22.2)	3(30.0)
예산의 부족	2(6.9)	0(0.0)	2(22.2)	0(0.0)
강사 섭외의 어려움	5(17.2)	1(10.0)	2(22.2)	2(20.0)
강의교안 준비의 어려움	1(3.4)	1(10.0)	0(0.0)	0(0.0)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2(6.9)	1(10.0)	0(0.0)	1(10.0)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9(31.0)	3(30.0)	3(33.3)	3(30.0)
기타	2(6.9)	1(10.0)	0(0.0)	1(10.0)
없음	1(3.4)	1(10.0)	0(0.0)	0(0.0)
계	29(100.0)	10(100.0)	9(100.0)	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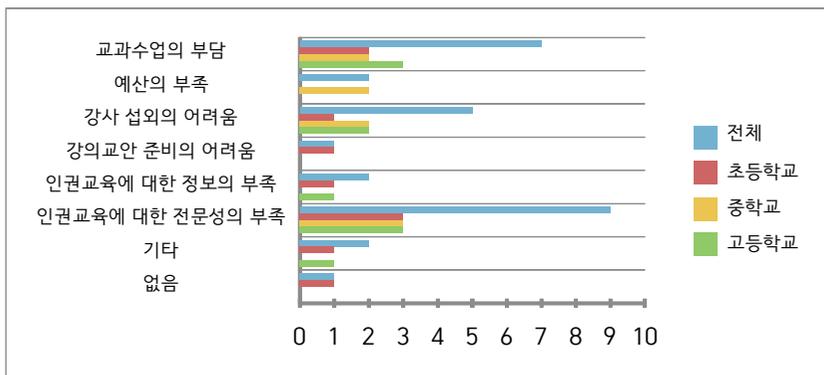


그림 7)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4-2)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별도의 인권교육 전문 인력 투입’ 을 바라는 교사가 3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17.2%, ‘충분한 강의정보, 강의교안 확보’ 13.8%, ‘학교 내 인권교육 전담인력 배치’ 10.3% 등의 순이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별도의 인권교육 전문 인력 투입’ 을 바라는 교사가 가장 많아 고민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 (단위: 개수, %)

구분 \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지원	2(6.9)	2(20.0)	0(0.0)	0(0.0)
학교내 인권교육 전담인력 배치	3(10.3)	0(0.0)	2(22.2)	1(10.0)
인권교육시간 확대	1(3.4)	0(0.0)	1(11.1)	0(0.0)
인권교육시간 축소	1(3.4)	0(0.0)	0(0.0)	1(10.0)
충분한 강의정보, 강의교안 확보	4(13.8)	2(20.0)	0(0.0)	2(20.0)
별도의 인권교육 전문 인력 투입	11(37.9)	4(40.0)	3(33.3)	4(40.0)
기타	5(17.2)	2(20.0)	2(22.2)	1(10.0)
없음	2(6.9)	0(0.0)	1(11.1)	1(10.0)
계	29(100.0)	10(100.0)	9(100.0)	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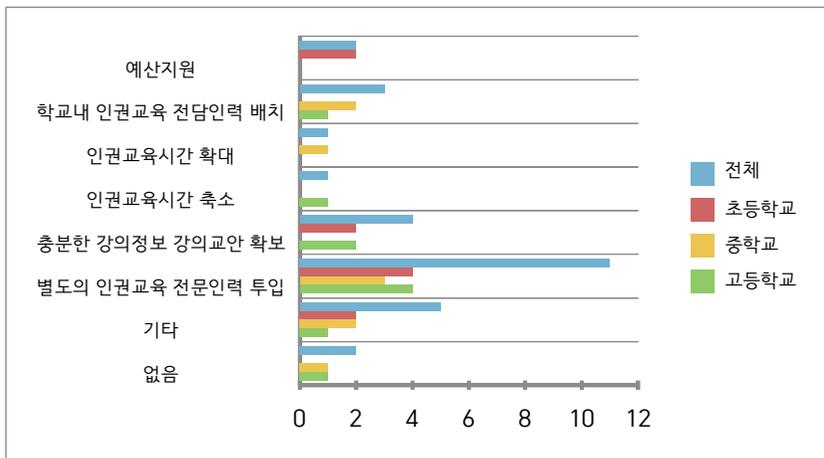


그림 8)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

제 2 절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한 학생들의 성별과 학년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 응답자 629명 가운데 남학생은 55.6%, 여학생은 44.4%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는 여학생의 비율이 51.0%로 남학생보다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7.1%, 60.5%로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 210명, 중학생은 2학년 80.1%, 1학년 14.1%, 3학년 5.8%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은 2학년 77.6%, 1학년 22.4%로 나타났다.

<표 13> 응답자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n=629)	전체 (n=629)	남학생	350	55.6
		여학생	279	44.4
	초등학교 (n=210)	남학생	103	49.0
		여학생	107	51.0
	중학교 (n=191)	남학생	109	57.1
		여학생	82	42.9
고등학교 (n=228)	남학생	138	60.5	
	여학생	90	39.5	
학년 (n=629)	초등학교 (n=210)	6학년	210	100.0
	중학교 (n=191)	1학년	27	14.1
		2학년	153	80.1
		3학년	11	5.8
	고등학교 (n=228)	1학년	51	22.4
2학년		177	77.6	

2. 인권인지도 및 관심

2-1)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48.5%를 차지하였다.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대강 알고 있다’는 학생은 42.1%,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잘 모른다’ 8.8%,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 0.7% 순이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의 경우는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대강 알고 있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권 인지도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	2(1.0)	0(0.0)	2(0.9)	4(0.7)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잘 모른다	20(9.9)	23(12.4)	11(4.9)	54(8.8)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대강 알고 있다	63(31.0)	91(49.2)	104(46.2)	258(42.1)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118(58.1)	71(38.4)	108(48.0)	297(48.5)
계	203(100.0)	185(100.0)	225(100.0)	61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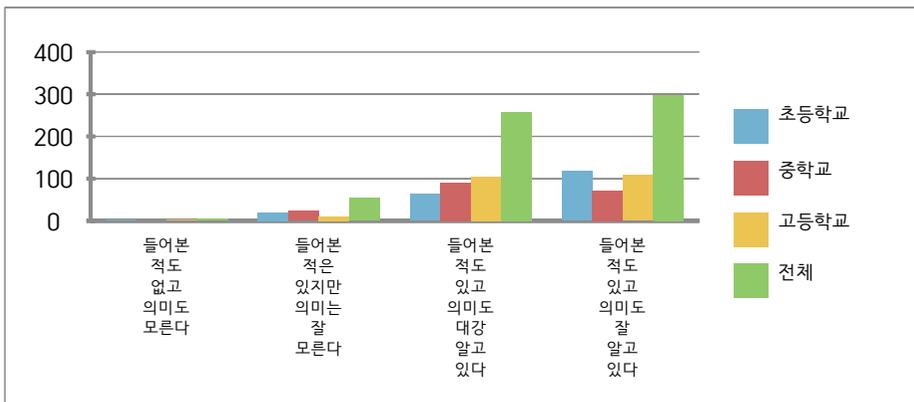


그림 9) 인권 인지도

2-2) “인권”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까?

2-1) 질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는 응답을 보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주에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인권’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들어보았다는 학생이 4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을 통해서’ 33.6%, ‘TV, 신문 등 언론매체’ 12.4% 순이었다. 초·중·고 모두 ‘학교 수업시간’ 과 ‘인권교육’을 통해서 평소 ‘인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5〉 인권 인지경로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인권교육을 통해서	77(38.3)	69(37.5)	58(26.1)	204(33.6)
학교 수업시간에	101(50.2)	94(51.1)	86(38.7)	281(46.3)
책에서(교과서 제외)	6(3.0)	5(2.7)	16(7.2)	27(4.4)
TV, 신문 등 언론매체	10(5.0)	13(7.1)	52(23.4)	75(12.4)
가족을 통해서	2(1.0)	0(0.0)	0(0.0)	2(0.3)
친구들을 통해서	0(0.0)	0(0.0)	2(0.9)	2(0.3)
기타	5(2.5)	3(1.6)	8(3.6)	16(2.6)
계	201(100.0)	184(100.0)	222(100.0)	60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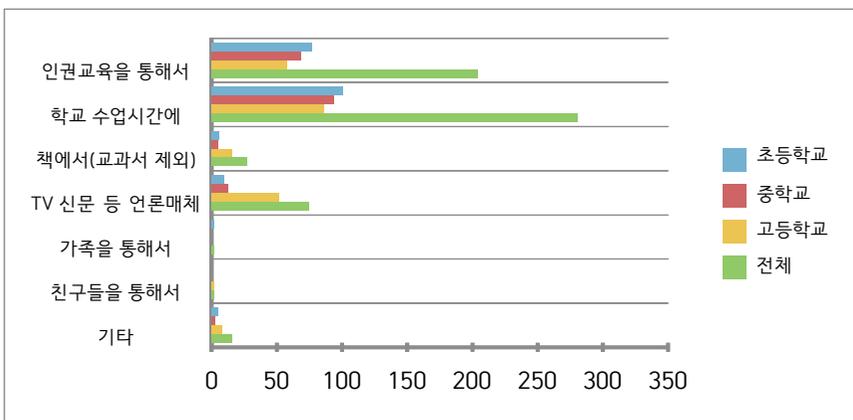


그림 10) 인권 인지경로

2-3) 평소 인권이나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평소 인권이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전혀 관심 없다’ 부터 ‘매우 관심 있다’ 는 응답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 응답학생의 평균은 6.24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5점 이하의 누적비율이 31.1%인 반면, 6점 이상의 비율은 68.9%에 달해 상대적인 관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평소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 급별로 관심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6.21점, 중학생 6.07점 순이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F=1.637, p=.196).

〈표 16〉 인권 및 인권교육 관심(n=570)

구분		빈도(n)	비율(%)	누적빈도(n)	누적비율(%)	
↑ 전혀 관심 없다 ↓ 매우 관심 있다	1점	12	2.1	12	2.1	
	2점	10	1.8	22	3.9	
	3점	20	3.5	42	7.4	
	4점	35	6.1	77	13.5	
	5점	100	17.5	177	31.1	
	6점	136	23.9	313	54.9	
	7점	121	21.2	434	76.1	
	8점	87	15.3	521	91.4	
	9점	25	4.4	543	95.8	
	10점	24	4.2	570	100.0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p)
전체	570	1.00	10.00	6.24	1.84	1.637 (.196)
초등학생	187	1.00	10.00	6.21	1.86	
중학생	178	1.00	10.00	6.07	1.89	
고등학생	205	1.00	10.00	6.41	1.76	

3. 인권교육 인지

3-1) 우리 학교는 학기마다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각 급 학교가 매 학기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판단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chi^2=9.706$, $p=.008$). 매 학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82.0%였으며, 초등학생 87.6%, 중학생 83.0%, 고등학생 76.4%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17〉 인권교육 실시 여부

(단위: 개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다	184(87.6)	160(83.8)	172(76.4)	516(82.4)
아니다	26(12.4)	31(16.2)	53(23.6)	110(17.6)
계	210(100.0)	191(100.0)	225(100.0)	626(100.0)
$\chi^2(p)$	9.706(.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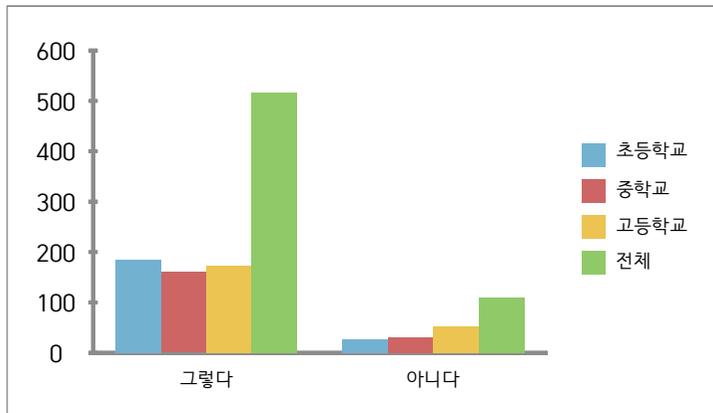


그림 11) 인권교육 실시 여부

3-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을 주로 어떤 형식으로 실시합니까?

학생인권교육의 형식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44.326$, $p=.000$). 전체 학생의 경우 ‘외부강사 강의’가 60.5%, ‘수업시간’ 24.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8.8% 순이었다. 초·중·고 모두 ‘외부강사 강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강사 강의’와 함께 ‘수업시간’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8〉 학생인권교육 형식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외부강사 강의	101(48.3)	136(71.2)	140(62.8)	377(60.5)
가정통신문 전달	10(4.8)	4(2.1)	7(3.1)	21(3.4)
수업시간	78(37.3)	35(18.3)	38(17.0)	151(24.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17(8.1)	9(4.7)	29(13.0)	55(8.8)
기타	3(1.4)	7(3.7)	9(4.0)	19(3.0)
계	209(100.0)	191(100.0)	223(100.0)	626(100.0)
$\chi^2(p)$	44.3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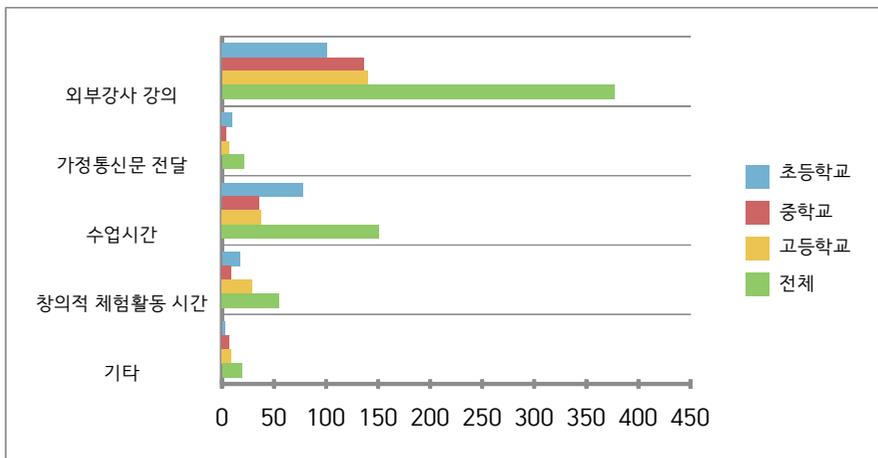


그림 12) 학생인권교육 형식

3-3)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인권교육이 학생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이 학생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63.182, p=.000$). 전체 학생의 경우 ‘그렇다’ 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39.2%, ‘매우 그렇다’ 12.8%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그렇다’ 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고등학생은 ‘보통이다’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생인권교육의 도움정도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3(1.5)	1(0.5)	6(2.7)	10(1.6)
그렇지 않다	6(2.9)	9(4.7)	18(8.1)	33(5.3)
보통이다	53(26.0)	67(35.1)	122(54.7)	242(39.2)
그렇다	105(51.5)	82(42.9)	67(30.0)	254(41.1)
매우 그렇다	37(18.1)	32(16.8)	10(4.5)	79(12.8)
계	204(100.0)	191(100.0)	223(100.0)	618(100.0)
$\chi^2(p)$	63.18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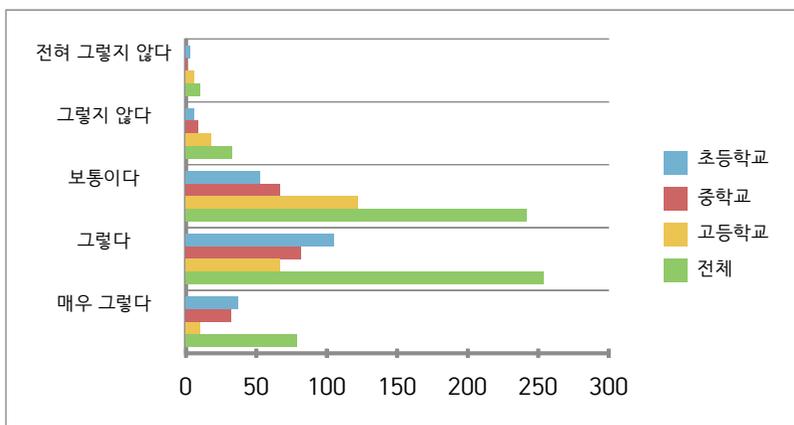


그림 13) 학생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3-4) 2018년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주제가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018년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의 주제인 ‘차별’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38.636$, $p=.000$). 전체 학생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은 ‘알고 있다’는 학생이 62.3%, 중학생 36.8%, 고등학생 35.4%와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20〉 인권교육 주제 인지 여부

(단위: 개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알고 있다	129(62.3)	70(36.8)	80(35.4)	279(44.8)
모른다	78(37.7)	120(63.2)	146(64.6)	344(55.2)
계	207(100.0)	190(100.0)	226(100.0)	623(100.0)
$\chi^2(p)$	38.63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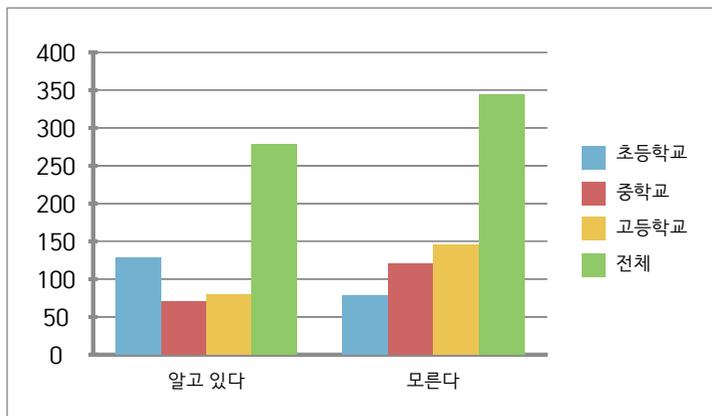


그림 14) 인권교육 주제 인지 여부

4. 인권교육 경험

1) 기본인권교육

(1) 기본인권교육 경험

기본인권교육 경험은 학교급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479$, $p=.107$). 기본인권교육 경험은 중학생의 경우 95.2%에 달하고, 초등학생은 94.8%, 고등학생은 90.5%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21〉 기본인권교육 교육경험

(단위: 개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없음	10(5.2)	9(4.8)	21(9.5)	40(6.7)
있음	182(94.8)	178(95.2)	201(90.5)	561(93.3)
계	192(100.0)	187(100.0)	222(100.0)	601(100.0)
$\chi^2(p)$	4.479(.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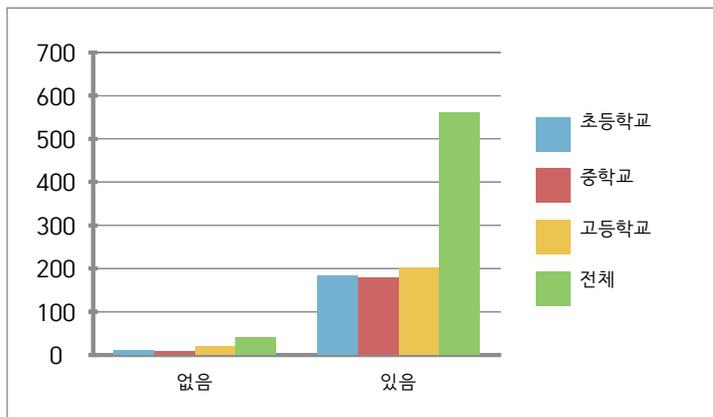


그림 15) 기본인권교육 교육경험

(2) 기본인권교육 교육받은 횟수

기본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2.42회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은 평균 3.17회, 중학생 2.54회, 고등학생은 1.59회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받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6.418$, $p=.000$). 한편,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교육받은 횟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 기본인권교육 횟수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p)
전체	495	1	20	2.42	2.13	26.418 (.000) a> b, c b> c
초등학생(a)	169	1	20	3.17	2.62	
중학생(b)	154	1	20	2.54	2.23	
고등학생(c)	172	1	5	1.59	.79	

주: 사후검증(post-hoc test)은 Scheffe검증을 실시함

2) 성(인권)교육

(1) 성(인권)교육 경험

성(인권)교육 경험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12.544$, $p=.002$).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이 94.4%, 중학생 90.0%, 고등학생은 83.9%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성(인권)교육 교육경험

(단위: 개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없음	11(5.6)	17(9.1)	35(16.1)	63(10.5)
있음	184(94.4)	169(90.9)	182(83.9)	535(89.5)
계	195(100.0)	186(100.0)	217(100.0)	598(100.0)
$\chi^2(p)$	12.544(.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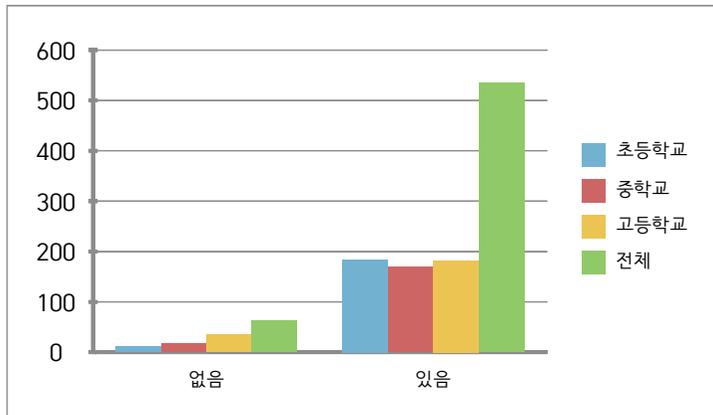


그림 16) 성(인권)교육 교육경험

(2) 성(인권)교육 교육받은 횟수

성(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2.31회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은 평균 2.99회, 중학생 2.34회, 고등학생은 1.53회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성(인권)교육을 받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0.616$, $p=.000$). 한편,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교육받은 횟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 성(인권)교육 횟수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p)
전체	467	1	13	2.31	1.78	30.616 (.000) a>b, c b>c
초등학생(a)	170	1	13	2.99	2.00	
중학생(b)	143	1	13	2.34	1.98	
고등학생(c)	154	1	5	1.53	.71	

주: 사후검증(post-hoc test)은 Scheffe검증을 실시함

3) 노동(인권)교육

(1) 노동(인권)교육 교육경험

노동(인권)교육 경험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31.165$, $p=.000$).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고등학생이 73.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61.9%, 중학생 45.6% 순이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교육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54.4%에 달해 초등학생, 고등학생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25〉 노동(인권)교육 교육경험

(단위: 개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없음	72(38.1)	98(54.4)	58(27.0)	228(39.0)
있음	117(61.9)	82(45.6)	157(73.0)	356(61.0)
계	189(100.0)	180(100.0)	215(100.0)	584(100.0)
$\chi^2(p)$	31.16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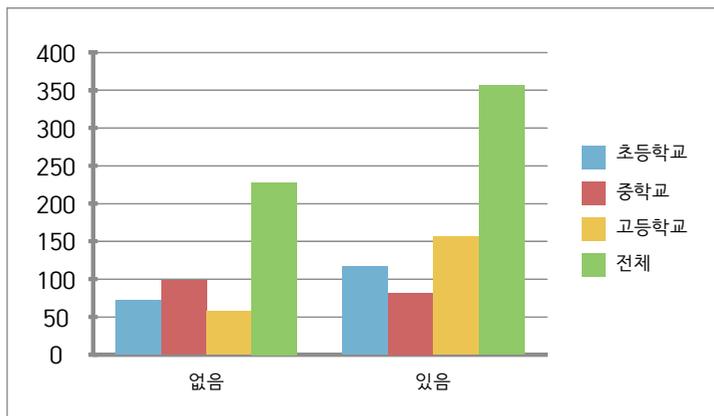


그림 17) 노동(인권)교육 교육경험

(2) 노동(인권)교육 교육받은 횟수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1.63회로 기본인권교육이나 성(인권)교육보다 교육받은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평균 2.00회, 중학생 1.59회, 고등학생은 1.34회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받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852$, $p=.000$). 한편,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6〉 노동(인권)교육 횟수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p)
전체	309	1	10	1.63	1.18	9.852 (.000) a>c
초등학생(a)	108	1	10	2.00	1.67	
중학생(b)	69	1	7	1.59	1.03	
고등학생(c)	132	1	3	1.34	.49	

주: 사후검증(post-hoc test)은 Scheffe검증을 실시함

5. 차별경험

최근 1년간의 차별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10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1.41점으로 전반적인 차별경험은 1년에 1-2회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별경험을 학교급별로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F=1.031$, $p=.357$). 고등학생이 평균 1.45점으로 차별경험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1.40점, 초등학생은 1.39점 순이었다.

각 항목별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F=3.705$, $p=.025$)는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차별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F=15.365$, $p=.000$)는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고,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

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F=5.649, p=.004)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많은 차별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7〉 차별경험

(단위: %)

내용	차별경험 범주					평균	F(p)	
	1	2	3	4	5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47.1	32.9	13.8	4.3	1.9	1.81	1.714 (.181)
	중(b)	43.2	26.8	22.6	5.8	1.6	1.96	
	고(c)	42.7	30.0	17.6	6.2	3.5	1.98	
	전체	44.3	30.0	17.9	5.4	2.4	1.9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61.9	21.0	12.4	3.3	1.4	1.61	3.705 (.025) c>a
	중(b)	54.5	24.1	16.2	3.1	2.1	1.74	
	고(c)	48.7	25.2	19.5	3.5	3.1	1.87	
	전체	54.9	23.4	16.1	3.3	2.2	1.75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51.4	27.6	12.9	5.2	2.9	1.80	1.435 (.239)
	중(b)	48.7	31.4	14.1	5.2	0.5	1.77	
	고(c)	44.5	28.2	20.3	4.0	3.1	1.93	
	전체	48.1	29.0	15.9	4.8	2.2	1.8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92.3	5.3	1.4	1.0	0.0	1.11	.044 (.957)
	중(b)	93.2	4.2	2.1	0.5	0.0	1.10	
	고(c)	91.2	7.5	0.4	0.9	0.0	1.11	
	전체	92.2	5.7	1.3	0.8	0.0	1.11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91.9	5.2	2.4	0.5	0.0	1.11	15.365 (.000) c>a, b
	중(b)	89.0	7.3	3.1	0.0	0.5	1.16	
	고(c)	74.3	15.5	4.9	3.1	2.2	1.43	
	전체	84.7	9.6	3.5	1.3	1.0	1.2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50.2	23.4	14.4	7.7	4.3	1.92	5.649 (.004) a>b, c
	중(b)	64.4	17.3	8.9	6.8	2.6	1.66	
	고(c)	63.9	19.4	11.9	2.6	2.2	1.60	
	전체	59.5	20.1	11.8	5.6	3.0	1.73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94.8	2.4	1.9	1.0	0.0	1.09	1.219 (.296)
	중(b)	90.6	3.7	4.7	0.5	0.5	1.17	
	고(c)	90.7	6.2	1.8	0.9	0.4	1.14	
	전체	92.0	4.1	2.7	0.8	0.3	1.13	
생김새, 피부색 등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84.8	10.0	4.3	1.0	0.0	1.21	.064 (.938)
	중(b)	85.9	7.9	3.7	2.1	0.5	1.24	
	고(c)	83.7	11.5	3.5	1.3	0.0	1.22	
	전체	84.7	9.9	3.8	1.4	0.2	1.22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91.4	6.2	1.9	0.5	0.0	1.11	.052 (.949)
	중(b)	93.2	2.1	4.2	0.0	0.5	1.13	
	고(c)	91.2	6.2	1.3	1.3	0.0	1.13	
	전체	91.9	4.9	2.4	0.6	0.2	1.12	

〈표 27〉 차별경험(표 계속)

(단위: %)

내용		차별경험 범주					평균 (순위)	F(p)
		1	2	3	4	5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초(a)	94.3	3.3	1.9	0.5	0.0	1.09	.030 (.970)
	중(b)	94.8	2.1	2.6	0.5	0.0	1.09	
	고(c)	95.1	3.1	0.4	1.3	0.0	1.08	
	전체	94.7	2.9	1.6	0.8	0.0	1.08	
전체평균	초(a)						1.39	1.031 (.357)
	중(b)						1.40	
	고(c)						1.45	
	전체						1.41	

주: 1. 1: 한번도 없음, 2: 일년에 1-2회정도, 3: 한달에 1-2회정도, 4: 1주일에 1-2회정도, 5: 1주일에 3회이상
2. 차별경험을 측정할 척도는 서열척도이나, ‘한번도 없음’ : 1점 ~ ‘1주일에 3회 이상’ : 5점을 부여
해 각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ANOVA를 실시하였다.

6. 교육만족도

해당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5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만족도를 학교급별로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5.86, p=.000). 중학생이 평균 3.9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3.89점, 고등학생은 3.36점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강사(교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만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주제,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각 항목별 만족도의 차이를 사후분석한 결과는 모두 동일하였다. 항목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8〉 교육만족도

(단위: %)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F(p)
교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초(a)	1.4	3.8	27.8	44.0	23.0	3.83	28.45 (.000) a>c b>c
	중(b)	1.6	2.6	25.1	41.9	28.8	3.94	
	고(c)	3.1	5.8	51.3	32.6	7.1	3.35	
교육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초(a)	1.4	3.8	24.4	48.8	21.5	3.85	27.25 (.000) a>c b>c
	중(b)	2.1	2.1	24.6	43.5	27.7	3.93	
	고(c)	2.2	6.3	50.9	33.5	7.1	3.37	
교육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초(a)	1.0	3.3	25.4	47.4	23.0	3.88	30.94 (.000) a>c b>c
	중(b)	1.6	1.0	26.7	39.8	30.9	3.97	
	고(c)	2.2	7.1	48.7	34.4	7.6	3.38	
교육시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초(a)	1.4	1.4	27.8	44.0	25.4	3.90	35.62 (.000) a>c b>c
	중(b)	1.6	3.7	25.7	38.7	30.4	3.93	
	고(c)	2.7	9.4	50.4	29.9	7.6	3.30	
교육진행 강사(교사)의 역량 과 전문성에 전반적으로 만 족한다	초(a)	1.0	2.4	23.9	40.7	32.1	4.00	27.84 (.000) a>c b>c
	중(b)	1.8	3.6	29.3	32.3	32.9	3.91	
	고(c)	2.0	7.0	49.7	32.2	9.0	3.39	
전체평균	초(a)	3.89						35.86 (.000) a>c b>c
	중(b)	3.94						
	고(c)	3.36						
	전체	3.72						

- 주: 1.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방송교육을 실시한 학교의 경우 강사(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 교육만족도를 측정할 척도는 원칙적으로 서열척도이나 ‘전혀그렇지않다’ : 1점 ~ ‘매우그렇다’ : 5점을 부여해 각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ANOVA를 실시하였다.

제 3 장 요약 및 제언

제 1 절 조사결과 요약

1.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현황

실제 모니터링이 진행된 29개의 학교 중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개교, 중학교는 9개교가 조사되었다. 학교유형은 ‘남녀 공학’ 이 25개(86.2%), ‘남학교’ 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였다. 설립유형은 ‘국공립’ 이 24개(82.8%), ‘사립’ 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포함되었다.

총 재학생 수는 평균 314.6명으로 최소 19명에서 최대 940명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초등학교는 평균 274명, 중학교는 평균 91명, 고등학교는 평균 731명으로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교육 참여 학생 수는 평균 78.2명으로 최소 12명에서 최대 701명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유형에서는 ‘기본인권교육’ 이 22개 학교에서 진행되어 가장 많았고, ‘성(인권)교육’ 은 6개 학교, ‘노동(인권)교육’ 은 1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학교급별로 ‘기본인권교육’ 의 비중이 모두 높았으며, ‘노동(인권)교육’ 의 경우 초·중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진행방법은 ‘반별교육’ (65.5%), ‘전체 집합교육’ (31.0%), ‘학년별 집합교육’ (3.4%) 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반별교육’ 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집합교육’ 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시간은 평균 1.1시간으로 파악되었다. ‘중학교’ 평균 1.2시간, ‘고등학교’ 평균 1.1시간, ‘초등학교’ 평균 1.0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교육시간이 가장 짧았다.

교육 형태는 ‘외부강사 강의’ 가 4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업시간’ 34.5%, ‘창의적 체험활동’ 17.2%, ‘방송교육’ 6.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 이 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학교는 ‘외부강사 강의’ 66.7%, 고등학교는 ‘외부강사 강의’,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이 각각 30.0%로

나타났다.

교육 교수방법은 ‘혼합형’ 이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합형’ 은 주로 ‘강의식’ 과 ‘시청각교육’ 이 혼용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청각교육’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강의교안의 유형에서는 ‘강사(교사)제작’ 이 44.8%로 가장 많았다. ‘기타’ 37.9%, ‘인권관련기관’ 10.3%, ‘국가인권위원회’ 와 ‘전라북도교육청’ 이 각각 3.4% 순이었다.

인권교육과의 관련성에서는 ‘관련있음’ 72.4%, ‘관련없음’ 27.6%였다. ‘관련없음’ 으로 분류된 교육은 중학교가 11.1%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20.0%, 고등학교 50.0% 순이었다.

‘정기적인 인권교육 계획수립 여부’ 는 모든 학교가 학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모든 학교에 있었으며 초등학교는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중·고등학교는 학생부나 인성인권부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타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고, 2018년 전라북도 학생인권 교육 주제 ‘차별’ 을 알고 있는 인권교육 담당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31.0%)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교과수업의 부담’ 24.1%, ‘강사 섭외의 어려움’ 17.2%, ‘예산의 부족’,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기타’ 항목이 각각 6.9% 순이었다.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별도의 인권교육 전문인력 투입’ 을 바라는 교사가 3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17.2%, ‘충분한 강의정보, 강의교안 확보’ 13.8%, ‘학교 내 인권교육 전담인력 배치’ 10.3% 등의 순이었다.

2.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629명 중 남학생은 55.6%, 여학생은 44.4%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는 여학생의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 210명, 중학생은 2학년 80.1%, 1학년 14.1%, 3학년 5.8%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은 2학년 77.6%, 1학년 22.4%였다.

인권에 대한 인지도는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48.5%를 차지하였다.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대강 알고 있다’ 42.1%,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잘 모른다’ 8.8%,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 0.7% 순이었다. 인권 인지경로는 ‘학교 수업시간에’가 4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권 교육을 통해서’ 33.6%, ‘TV, 신문 등 언론매체’ 12.4% 순이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평균 6.24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5점 이하의 누적비율이 31.1%인 반면, 6점 이상의 비율은 68.9%에 달해 상대적인 관심 수준이 높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 고등학생의 평균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21점, 중학생 6.07점 순이었다.

인권교육 실시 여부는 학교급별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판단 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chi^2=9.706$, $p=.008$). 매 학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82.0%로, 초등학교 87.6%, 중학생 83.0%, 고등학생 76.4%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학생인권교육의 형식은 ‘외부강사 강의’ 60.5%, ‘수업시간’ 24.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8.8% 순이었다. 초·중·고 모두 ‘외부강사 강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신장예의 도움정도는 ‘그렇다’ 41.1%, ‘보통이다’ 39.2%, ‘매우 그렇다’ 12.8% 순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고등학생은 ‘보통이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교육의 주제 ‘차별’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는 ‘알고 있다’는 학생이 62.3%로, 중학생 36.8%, 고등학생 35.4%와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본인권교육 경험은 중학생은 95.2%, 초등학교 94.8%, 고등학생은 90.5%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기본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2.42회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는 평균 3.17회, 중학생 2.54회, 고등학생은 1.59회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받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권)교육 경험은 초등학교가 94.4%, 중학생 90.0%, 고등학생은 83.9%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2.31회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는 평균 2.99회, 중학생 2.34회, 고등학생은 1.53회로 고등학

교로 올라갈수록 성(인권)교육을 받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경험은 고등학생이 73.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61.9%, 중학생 45.6% 순이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교육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54.4%에 달해 초등학생, 고등학생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1.63회로 초등학생은 2.00회, 중학생 1.59회, 고등학생은 1.34회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받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의 차별경험 10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1.41점으로 전반적인 차별경험은 1년에 1-2회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생이 평균 1.45점으로 차별경험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1.40점, 초등학생은 1.39점 순이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F=3.705, p=.025$)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차별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F=15.365, p=.000$)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고,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F=5.649, p=.004$)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많은 차별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2점으로 중학생이 3.9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3.89점, 고등학생은 3.36점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강사(교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만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주제,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항목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제언

첫째, 인권을 다루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면서 인권 관련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교과에 어떠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인권을 다루고 있는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인 인권교육 계획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초

등학교의 경우 사회,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인권 관련 내용이 상당 분량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들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교육 담당 교사들의 경우 다른 형태의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학년이 바뀌면 인권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해당 교과 내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보급은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교육용으로 사용할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방문한 학교 교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는 있으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서 이마저도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심지어 교육을 진행한 외부강사들조차도 기존의 완성된 인권교육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 내용에 맞게 자신이 편집한 자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도교육청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인권교육 진행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외부강사를 활용한 1회성 인권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흡수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육보다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전담할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외부강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노동(인권)교육은 도교육청의 지원하에 한 학년 반별교육이 가능해 신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방송교육이나 시청각교육으로 대체하는 학교들이 있었다. 이는 학교의 규모가 크고, 사립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두드러지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지원과 권고가 필요하다.

넷째, 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도 시급하다.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기 초, 인권교육 강사 목록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목록을 통해 강사를 섭외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한 학교도 있었으나 학교의 일정과 강사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일 경우에는 더욱 일정조정이 어려워 보였다. 강사 풀이 있지만 그 수가 적어 이용하기

에는 제약이 따랐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외부강사를 섭외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때 외부강사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큰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인권교육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태도가 그나마 좋은 편이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급학교일수록 보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매년 인권교육주제와 관련된 균형 있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2018년 전라북도 학생 인권교육의 주제는 ‘차별’이다. 모니터링 대상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홍보와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미흡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교사들의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인권교육이 매년 비슷한 내용, 강사가 선정된 주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로 인권교육 유형이 ‘성(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보다는 ‘기본인권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다. 인권교육 계획 수립 시 주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육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 학교 현장의 노력도 뒤따라야 하겠다. 전라북도 학생 인권교육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다. 인권교육 외에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이 많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교육을 연계해 실시하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학교들에서 인권교육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전문성 부족 등 학교 현장의 현실적 한계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도 뒤따라야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한 탄력적인 인권교육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매학기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을 사용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자율학교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추진 계획 역시 이를 토대로 변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는 도덕이나 사회 교과 안에 인권과 관

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활용해 해당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고등학교는 추가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노동인권이 주를 이루되,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매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설정한 주제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도록 탄력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학생 인권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2017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 서울시교육청. 2015.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전라북도교육청. 2014.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 해설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부 록

2018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018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설문지(학생용)

2018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학교유형	① 남녀공학 ② 남학교 ③ 여학교
2.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학생수	3. 전체학생수 ()명
	4. 교육참여 학생수 ()명
5. 교육유형	① 기본인권교육 ② 성(인권)교육 ③ 노동(인권)교육
6. 교육진행방법	① 전체집합교육 ② 학년별집합교육 ③ 반별교육
7. 교육시간	()시간
8. 교육형태	① 외부강사강의 ② 가정통신문 ③ 수업시간 ④ 창의적체험활동 ⑤ 방송교육 ⑥ 기타
9. 교육 교수 방법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참여식(역할극 등) ④ 시·청각교육 ⑤ 혼합형 ⑥ 기타
10. 강의 교안의 유형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전라북도교육청 ③ 타 시도 ④ 강사(교사)제작 ⑤ 인권관련기관 ⑥ 없음 ⑦ 기타
11. 인권과의 관련성	① 관련 있음 ② 관련 없음
12. 정기적인 인권교육 계획수립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3. 학생 인권교육 담당 교사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14. 학생 인권교육 전담 교사의 교과수업 외 다른 업무와의 병행 여부	① 병행함 ② 병행하지 않음
15. '2018 인권교육주제 인지 여부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p>16. 인권교육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p>	<p>① 교과수업의 부담 ② 예산의 부족 ③ 강사섭외의 어려움 ④ 강의 교안 준비의 어려움 ⑤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⑥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⑦ 기타 ⑧ 없음</p>
<p>17.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은?</p>	<p>① 예산지원 ② 학교 내 인권교육 전담인력 배치 ③ 인권교육 시간확대 ④ 인권교육 시간 축소 ⑤ 충분한 강의 정보, 강의 교안 확보 ⑥ 별도의 인권 교육 전문인력 투입 ⑦ 인권교육 필요 없음 ⑧ 기타 ⑨ 없음</p>

2018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 설문지(학생용)

	-		-		
--	---	--	---	--	--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시행 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인권교육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인권교육의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향후 전라북도 학생 인권 교육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본 설문지 내용은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개인이나 학교의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018년 월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응답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거나 간단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__	② 여자__
2. 학년	()학년	

※ 다음은 인권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3. “인권”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4번 문항으로 가세요)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잘 모른다(3-1번 문항으로 가세요)
- ③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대강 알고 있다(3-1번 문항으로 가세요)
- ④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3-1번 문항으로 가세요)

3-1. “인권” 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까?

- ① 인권교육을 통해서 ② 학교 수업시간에 ③ 책에서(교과서 제외)
- ④ TV, 신문 등 언론매체 ⑤ 가족을 통해서 ⑥ 친구들을 통해서 ⑦ 기타

<p>※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u>최근 1년 동안</u>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한 차별을 <u>얼마나 자주</u> 경험했습니까?</p>						
<p>※ 해당 되는 번호에 √ 표시함</p>		<p>한번도 없음</p>	<p>일년에 1-2회 정도</p>	<p>한달에 1-2회 정도</p>	<p>1주일 에 1-2회 정도</p>	<p>1주일 에 3회 이상</p>
12-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6	외모나 신체 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7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8	생김새, 피부색 등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9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12-10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p>※ 다음은 오늘 진행된 교육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u>√표시</u>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전혀 그렇지 않다</p>	<p>대체로 그렇지 않다</p>	<p>보통 이다</p>	<p>대체로 그렇다</p>	<p>매우 그렇다</p>
13-1	교육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2	교육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3	교육주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4	교육시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5	교육 진행 강사(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18년

전라북도 인권 모니터링

인 쇄 일	2018년 12월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http://www.jbe.go.kr >
연구기관	군산성폭력상담소
인 쇄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